

寒山詩의 言語特色

박 노 현*

< 目 次 >

I. 序論	2. 道敎用語
II. 本論	3. 通俗用語
1. 佛敎用語	III. 結論

< 국문 초록 >

寒山은 唐代 貞元年間(785~804) 전후에 생존했던 시인으로, 중국 天台山 寒岩 隱居했었기에, 한산 또는 한산자로 불리운다. 한산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천태산 國淸寺의 豐干·拾得과 교류가 있었던 기록 등 수편이 있으나, 그의 성명과 생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한산시는 당대이후 民間에게 상당히 유행되어, 특히 佛家에서 두드러지게 愛好되면서, 宋·明을 거치며 여러 판본이 출현하였고, 清代에 이르러서는 『全唐詩』와 『四庫全書』에 실리게 되는 등 천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왔다.

한산시의 언어특색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불교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한산의 시가 불교적 색채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산시 언어특색 중 가장 우선은 바로 불교용어의 사용이라 하겠다.

또 한산시 언어특색 중 두 번째 특색은 도교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한산이 과거급제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난후 방랑을 거듭하다가 도교에 귀의하기도 한다. 이때의 경험이 그의 시 많은 부분에 투영되어 시속에 도교용어가 다수 쓰이

* 상지영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san0877@hanmail.net

고, 시 내용 역시 도교적 색채가 뚜렷한 내용도 많다.

寒山詩의 언어특색 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속용어의 사용이라 하겠다.

寒山은 천태산 한암에 은둔의 길을 택하면서 인간속세와 절연하고, 심산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부귀공명을 추구하던 때의 일과 과거 속세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던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들 속에 통속용어들을 다수 쓰고 있다. 한산의 통속용어를 詩語로 사용한 경우, 그 시가 평이하고 자연스러우며, 살아있는 듯한 시로 다시 태어나 다른 시인들보다 생동감 있는 맛과 멋이 있게 했다.

【주제어】 한산시, 언어특색, 불교용어, 도교용어, 통속용어.

I. 序論

중국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詩가 散文과 함께 정통문학의 지위를 지켜왔다. 비록 宋代 이후 白話體 文學이 대두되었고, 또 小說 및 曲 등의 문학적 장르가 새로운 문학형태로 자리를 차지한 때도 있기는 했으나 중국문학사에서 詩가 散文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지켜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中國文學史上 『詩經』으로 출발하여 한, 위진, 남북조, 수시를 거쳐 唐代에 이르러서는 詩가 가장 꽃피웠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寒山은 王梵志, 拾得 등과 함께 나름 독자적 시풍으로 당시 詩風 全盛 時代를 이루었던 시기에 배출된 많은 시인 가운데 괄목할 만한 인물 중 하나였다.

寒山은 唐代 貞元年間(785~804) 전후에 생존했던 시인으로, 중국 天台山 寒岩 隱居했었기에, 寒山 또는 寒山子로 불리 운다. 한산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천태산 國淸寺의 豐干·拾得과 교류가 있었던 기록 등 수편이 있으나, 그의 성명과 생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四部叢刊影宋抄本 寒山子詩集에는 台州刺史 閻丘胤 序文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閻丘胤이 한산과 습득을 親見하려 하였으나, 한산이 그의 巖穴로 숨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이에 閻丘胤은 僧 道翹를 시켜 한산의 行狀을 찾게 하였으나, 竹·

木·石壁과 村野人家의 壁에 남긴 삼백여수의 시와 습득이 남긴 시만 남아 있어, 이를 수집하여 寒山子詩集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寒山詩는 晚唐이후 民間에게 상당히 유행되어, 특히 佛家에서 두드러지게 愛好되면서, 宋·明을 거치며 여러 판본이 출현하였고, 清代에 이르러서는 『全唐詩』와 『四庫全書』에 실리게 되는 등 천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왔다.¹⁾

한산은 스스로 자신의 시 작품수가 약 600 여수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현존하는 각 版本의 한산자 시집을 살펴보면 한산의 시는 약 300 여수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한산자시집의 版本系統은 5종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을 底本으로 하였고, 寒山詩는 모두 無題詩이므로 편의상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에 수록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겼음을 밝혀둔다.

또한 한산의 生涯와 관련된 연구와 그 시 내용 및 그 시 속에서 儒佛道思想과 관련된 논문들은 다수가 있다. 그러나 寒山詩의 형식적인 특색을 연구한 논문들은 앞에 언급한 연구들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만 본고에서는 우선 형식적 특색중 하나인 언어특색을 종합적이고, 개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학이란 본래 인류의 정서,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어서 언어 또는 문장으로써 표현한 예술 및 그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시는 문학예술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럼 한 작가의 시작품에 나타난 형식적 특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는 바로 시 작품의 내용과 형식중 그 외형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작가는 자신의 시작품을 어떻게 포장 또는 아름답게 표현해내느냐에 따라 비로서 자신만의 형식적 특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寒山詩의 형식적 특색 중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한산이 시속에 사용한 언어적 특색과 수사적 특색과 성물적 특색 등으로 나눌 수

1) 拙著, 『寒山詩及其板本之研究』, 臺灣 國立政治大學校 中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75年12월, pp.6-23.

있겠다. 그중에서 본고는 언어적 특색을 우선 분석 연구 해보고자 한다.

언어는 원래 음성 또는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공구이다. 한산이 자신의 시속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적 특색을 분석해 보면 불교적 용어와 도교적 용어, 그리고 통속적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특색이 있다.

II. 本論

1. 佛教用語

시의 본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한 몸에 두 개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시의 內涵과 또 다른 하나는 시의 언어라 할 수 있겠다. 시의 내함과 시의 언어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논한다면 그 어느 것도 더 중요하다 또는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이 둘 다 똑같은 무게로 중요하다 하겠다. 즉 이 두 가지가 모두 시인의 풍격을 바로 나타낸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바로 시인의 개성과 특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치 시인의 외모와 성정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 할 수 없듯이 시가 갖고 있는 손등과 손안이 한 손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啼哭緣何事	무엇 때문에 저리도 슬피 우는 것일까?
淚如珠子顆	눈물이 마치 염주알과 같다.
應當有別離	누구랑 분명 이별 했고,
復是遭喪禍	다시 누가 죽은 것이리라.
所爲在貧窮	아니, 모두 구차한 탓이라 하면서,
未能了因果	원인 결과의 법칙을 모르나니,
塚間瞻死屍	높고 낮은 묘지의 저 무덤을 보라.
六道不干我	六道도 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²⁾

2) 四部叢刊影宋刻本『寒山子詩集』, 72.

佛敎에서 가장 근본적인 추구 목표는 衆生들이 世俗에 얽매어 地獄, 餓鬼, 畜生, 修羅, 人間, 天上, 즉 六道의 윤회에서 벗어나 解脫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現生에서 내가 지은 業報에 따라 윤회의 법칙에 따라 來生에 내가 다시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가가 결정된다. 맨 마지막 두 구에 대한 뜻을 『寒山詩注』에 보면, “무덤들을 보고 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得覺하게 되는 것은 六道生死輪回의 고통을 탈피해 中國에는 해탈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³⁾ 이러한 佛敎의 이치를 잘 설명하고 있는 시로 珠子顚, 因果, 六道 등이 佛敎用語로 시의 내용 중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不行眞正道	참되고 바른길을 행하지 않고
隨邪馳行婆	婆子の 사악한 길을 수행하는 사람들,
口慙神佛少	입으로는 부처 앞에 부끄러움이 적다하나,
心懷嫉妬多	마음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구나.
背後噏魚肉	뒤에서는 물고기 육고기 함부로 먹으면서,
人前念佛隨	사람들 앞에서는 염불을 읊는구나.
如此修身處	이렇게 수신을 하는 사람들
難應避奈河	그는 지옥행을 면치 못하리라. 4)

佛敎에서는 이 세상에서 福을 심고 키우면 極樂을 갈 것이고, 現世에 禍를 심고 키우면 地獄으로 떨어진다고 說法하고 있다. 옳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사악한 길로만 가고, 입으로는 선행을 한다 하나, 맘속으로는 사악한 맘만 가득 차 있고, 뒤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念佛만 읊어대니 이것이 바로 지옥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리니 어리석은 衆生들이 이 참 진리를 못 깨우치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寒山이 이 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깨우침과 경고를 주고자 한 것이리라. 이 시 1,3,5구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면서 2,4,6구에서는 가식적인

3) 項楚, 『寒山子詩注』, 中華書局, 2000, p.198.

4)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74.

언행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대구로 표현하고 끝 7,8구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있다. 行婆⁵⁾, 神佛, 佛陀, 奈河⁶⁾ 등의 불교용어가 시 전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불교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世有多解人	세상에 많이 안다는 사람들
愚癡徒苦幸	어리석게 한갓 고통만 따르네.
不求當來善	미래의 착한 복은 구하지 않고,
唯知造惡困	다만 악한 일만 저지를 줄 아는구나.
五逆十惡輩	五逆 ⁷⁾ 罪와 十惡 ⁸⁾ 罪를 짓는 무리,
三毒以爲親	三毒 ⁹⁾ 을 가까이 지내는구나.
一死入地獄	한순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리니,
長如鎮庫銀	길게는 鎮庫銀 ¹⁰⁾ 과 같이 되리라. ¹¹⁾

세상의 일을 더욱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惡行이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오히려 선불리 아는 것이 많은 것 보다 차라리 하나도 모르는 것이 좋다. 지금 아는 것을 모두 버리면, 참 앎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불교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시 전체에 佛教의 교리를 설명하며 五逆, 十惡, 三毒, 地獄, 鎮庫銀 등의 佛教用語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空'을 추구하는 佛教의 이치를 설명한 詩로,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속세의 현상처럼 佛陀正覺에 도달하고자 하는

5) 禪書중에서 말하는 婆子の 도를 행함을 의미함.

6) 지옥을 뜻한다.

7) 無間地獄에 떨어질 다섯 가지의 악행,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阿羅漢을 죽이는 일, 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일, 부처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 이상 다섯 가지를 五逆罪라 한다.

8) 몸. 입. 뜻의 三業으로 짓는 열 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으로, 殺生, 도둑질, 간통 등 몸으로 짓는 죄와,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의 뜻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9) 貪毒, 瞋毒, 痴毒을 말하는 것이다.

10) 창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끝내 쓰일 데 없는 보물을 의미한다.

11) 四部叢刊影宋刻本『寒山子詩集』, 91.

생각자체가 바로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니 모든 속세의 번뇌와 잡념을 모두 버리며 아울러 三毒을 모두 끊고, 오로지 無念無想의 경지를 추구하라는警句가 담긴 시이다. 여기서도 閻浮, 三毒法, 菩提, 煩惱 등 불교용어가 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衆生不可說	중생들이 감히 말하지 마라,
何意許顛邪	어찌 모두들 제정신들을 잃어버렸다고.
面上兩惡鳥	얼굴에는 두 마리의 악한 새가 있고,
心中三毒蛇	맘속에는 세 마리 독이 가득한 뱀이 자리 잡고 있으니,
是渠作障礙	이것들이 모두 장애가 되어,
使爾事煩拏	너를 번뇌하게 하는구나.
舉手高彈指	손을 높이 들어 손가락을 튕기노라,
南無佛陀耶	나무 불타야 라고. ¹²⁾

이 詩 역시 부처님에게 歸依하라는 寒山의 뜻이 담긴 시이다. 얼굴에는 見思煩惱와 無明煩惱의 두 가지 번뇌가 자리 잡고 있고, 마음속에는 貪慾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三毒을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 참다움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佛, 法, 僧 三寶에 歸依하겠는가? 迷惑의 속세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衆生들을 바라보며 寒山이 안타까움에 以詩示法하고 있다. 여기서도 兩惡鳥¹³⁾, 三毒蛇, 彈指¹⁴⁾, 南無佛陀耶¹⁵⁾ 등 역시 불교용어가 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人生一百年	인생 일백년
佛說二十部	불가의 설법은 12부
慈悲如野鹿	자비는 들 사슴 같고,
瞋忿似家狗	진분은 집안의 개와 같으니,
家狗趁不去	집안 개는 쫓아내도 갈 줄 모르고,

12)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226.

13) 두 가지의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는 見思煩惱와 無明煩惱를 말한다.

14) 부처에 귀의하는 기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5) 중생이 佛, 法, 僧의 三寶에 진심으로 귀의한다는 뜻이다.

野鹿常好走	들 사슴은 언제나 달아나기 좋아하네,
欲伏獼猴心	잔나비 같은 마음 행복 받으려면
須聽獅子吼	반드시 사자후를 들어라. ¹⁶⁾

『大般涅槃經』卷17에 보면 “부처님의 말씀은 12부 경전으로 되어있다”라고 언급되어 있고¹⁷⁾, 또 『大般涅槃經』卷15에 보면 “집안 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사슴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한다. 성내는 마음은 집안 개 같아서 쫓아 보내기 어렵고, 자비는 들 사슴과 같아서 잃어버리기 쉽다”¹⁸⁾라고 설법하고 있다. 또 『大般涅槃經』卷29에 보면 “중생의 마음은 잔나비와 같다. 잔나비의 품성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취한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色聲香味觸法을 취함에 주저함이 없다.”¹⁹⁾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 전체 내용이 불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 쓰인 佛說, 十二部²⁰⁾, 慈悲, 獼猴心²¹⁾, 獅子吼²²⁾ 등의 불교용어가 시 구성의 큰 기둥이 되고 있다.

위 시의 예에서 보듯 寒山詩 300여수중 그 시에 사용된 불교용어의 사례는 매우 많다. 이를 그 특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교인물과 인체 명칭

大法王, 彌勒, 羅刹, 轉輪王, 羅漢, 和尚, 法師, 寶志, 萬廻師, 大士, 本來人, 釋迦佛, 南無佛陀耶, 如來, 閻王, 佛身, 六根, 上人, 衆生, 十號 등

16)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152.

17) 『大般涅槃經』卷十七: 過去諸佛, 爲度衆生, 佛說十二部經.

18) 『大般涅槃經』卷十五: 又如家犬, 不畏於人, 山林野鹿, 見人怖走. 曠難去, 如守家狗, 慈心易失, 如彼野鹿

19) 『大般涅槃經』卷二十九: 衆生心性, 猶如獼猴, 獼猴之性, 捨一取一. 衆生心性, 亦復如是, 取著色聲香味觸法, 無暫住時.

20) 부처님 일생에 대한 말씀은 12부 경전으로 되어 있다.

21) 잔나비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그 본 뜻은 욕심이 많아 심성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22) 부처님의 한 번 설법에 악마들이 굴복하여 귀의하게 됨을 말한다.

2) 經典과 事物

打鐘, 七寶, 天龍, 圍陀典, 金剛經, 褐依, 古佛, 天臺鏡, 伽陀樂, 摩尼, 袈裟, 法中王, 三教文, 燃燈, 沙門, 十二部, 福田依, 水精珠, 千聖, 浮圖 등.

3) 사람의 심성

智慧, 十善, 衣中寶, 主人公, 自心, 白牛, 心王主, 心王, 真心, 明珠, 廻心, 泥丸, 正主, 自性, 天真, 淸淨心, 生芽, 眞如性, 獼猴心, 獅子吼, 平等心, 心珠, 無明, 摩尼珠, 靈臺 등

4) 人生途界

六趣, 四依, 破戒, 佛果, 婆子, 六道, 五逆, 解脫地, 十惡, 出家, 菩薩道, 五陰, 三毒, 三途, 三惡道, 三界論, 萬象, 地獄, 六箇賊 등.

5) 其他

陽燄, 醜鬪, 禪, 禪林, 大千, 一法, 功德林, 歸依, 黑雲雨, 八風, 六門, 六語, 四生, 如如, 上人法, 須彌, 空花, 菩提子, 三車, 法王印, 無盡燈, 一代教 등.

寒山의 시에는 위와 같이 詩속에서 불교용어를 사용한 것 이외에도 특이하게 我見000, 世有000의 유형으로 시 첫 구를 시작하는 시들이 많이 보인다. 寒山詩 모두가 無題詩이기에 그 첫 구에 다수의 유사성이 보이는 것은 寒山詩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我見世間人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보아하니
生而還復死	태어나 살다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구나.
昨朝猶二八	어제 아침에 18세
壯氣胸襟士	장한 기운이 가슴에 가득하더니,
如今七十過	오늘에 이르러서는 70세가 지나서
力因形憔悴	힘은 없어지고 형상은 초췌해져,

恰似春日花	마치 봄날 꽃같이
朝開野落爾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구나. ²³⁾

世上萬事 宇宙의 森羅萬象이 無常하다. 세월은 流水와 같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흘러간다. 마치 봄날의 꽃이 아침에 피었다가는 저녁에 저서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역시 無常, 虛妄한 것이다. 그래서 寒山은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한다.

我見黃河水	내가 저 황하수를 보고 있는데,
凡經幾度清	무릇 몇 번이나 맑았던 적이 있다가?
水流如急箭	물이 흘러가기가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고
人世若浮萍	세상 사람들은 마치 부평초와 같은 신세로구나.
癡屬根本業	어리석음은 업보의 근본인양,
無明煩惱阮	無明이 번뇌의 구덩이에 빠지니,
輪迴幾許劫	그 얼마나 많은 겁의 수레바퀴를 돌았던가.
只爲造迷盲	다만 눈먼 장님이 되었기 때문이구나. ²⁴⁾

중국의 黃河水가 언제 한번이라도 맑았던 적이 있겠는가? 과연 옛부터 黃河가 맑았었다면 그 강의 이름이 황하가 되었겠는가? 黃河는 중국에서 늘 맑지 않고 탁하게 수천년을 흘렀기 때문에 '누루 황'자가 들어가는 황하가 그 이름이 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죽기까지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 같고, 이는 마치 물이 흘러가 듯 늘 덧없이 빨리 흘러간다.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無明이 번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려면 빨리 어리석음의 업보에서 벗어나 自心無事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 즉 눈 먼 迷盲의 상태에서 빨리 眞如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本業, 無明, 煩惱, 輪迴, 幾許劫, 造迷盲 등의 불교적 용어를 詩語로 다수 사용하고 있다.

23)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265.

24)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253.

世有一等愚	세상에 일등 어리석은 이가 있었으니
茫茫恰似驢	그 멍청함이 마치 나귀와 같구나.
還解人言語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이해하면서도,
貪姪狀若豬	여색을 좋아하기는 꼭 돼지와 같구나.
險巖難可測	그 음흉함은 예측할 수가 없고
實語却成虛	진실 된 말은 오히려 거짓된 말이 되니,
誰能共伊語	그 누구라서 그와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令教莫此居	차라리 그를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하리라. ²⁵⁾

위에 보는 바와 같이 世有000 형식의 寒山詩 역시 我見000 형식의 寒山詩와 같이 佛敎의 내용을 담고 세상 사람들에게 勸戒性 내용을 시로 표현해 냈고 있다. 위의 시에서 보듯 色을 탐하고, 음흉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매우 멍청하니 진실로 세상에서 제일로 어리석은 이다.

世有一等流	세상에 일등 사람 있어
悠悠似木頭	관심 없기가 나무토막 같다.
出語無知解	하는 말마다 지혜가 없고
云我百不憂	스스로 나는 하나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한다.
問道道不會	도를 물어봐도 도를 알지 못하고
問佛佛不求	佛法을 물어보면 佛法을 구하지 않는다 한다.
子細推尋著	자세히 찾아보고 생각해보니
茫然一場愁	망연 그 자체로 근심 덩어리였네. ²⁶⁾

인생살이 일백년도 안 되는데, 세상사에 관심도 없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지혜도 없다 느껴지는 수준이고, 남이 보면 걱정이 정말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오히려 걱정 하나 없다고 하니 그 멍청함이 하늘을 찌른다. 道를 물어봐도 모르고 佛法도 모르고 도대체 아는 것이 없다, 참 큰 근심 덩어리이다. 위에 시에서는 世有一等愚로 세상 가장 어리석음을 나무랐는데, 이 시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世有一等流로 표현 반어법과 그 어리석

25)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75.

26)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136.

음을 풍자하고 있다. 출발은 다르나, 그 내용은 결국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노래하며 세상 이치 佛法을 차라리 깨우치라고 勸戒하고 있다.

위에서 예시한 시들의 我見000, 世有000로 시작하는 시들의 시작하는 첫 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我見世間人.....
- 我見一等人.....
- 我見凡愚人.....
- 我見利智人.....
- 我見多智漢.....
- 我見謾人漢.....
- 我見一痴漢.....
- 我見轉輪王.....
- 我見出家人.....
- 我見人轉經.....
- 我見黃河水.....
- 世有多事人.....
- 世有一般人.....
- 世有聰明士.....
- 世有一等愚.....
- 世有一等流.....

이상과 같이 寒山詩 속에 불교적 용어 사용한 것 이외에도 寒山詩중 다수의 “我見000”, “世有000” 등의 구형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계하는 내용의 시를 쓴 것 역시 佛教的 色彩가 깊은 시들 또한 다수가 있다.

2. 道教用語

寒山詩중 다수의 불교용어 사용이외에도 또한 다수의 도교용어 사용도 도처에 보인다. 원래 한산은 짧은 시절 입신양명하러 무척이나 노력하였

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방황하다가 현실도피적인 도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은둔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寒山詩중 도교용어 사용 역시 매우 많다.

한산에 대해 余嘉錫은 “그 사람은 황로신선의 학자.”²⁷⁾로 언급 할 정도로 그의 시속에는 道敎의 색채가 깊다.

出生三十年	이 세상 태어난 지 삼십년
常遊千萬里	늘상 천만리를 돌면 다녔다.
行江青草合	강가에 가니 푸른 풀 우거지고,
入塞江塵起	국경에 도달하니 붉은 티끌 일어났고,
鍊藥空求仙	연금술로 단약을 만들어 헛되어 신선이 되어보려고 도 했고,
讀書兼詠史	책도 읽어 보고 시도 지어봤다.
今日歸寒山	오늘은 한산에 돌아와
枕流兼洗耳	개울을 베고 누워 귀를 씻었다. ²⁸⁾

이 시는 한산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시로, 지나간 삼십년 이리 저리 떠돌다 한때는 道家에 심취해 연금술로 仙丹藥을 만들기도 하고, 책과 시도 지으면 儒家에 관심을 가져 보기도 하였으나 중국에는 한산에 돌아와 佛敎에 귀의하였다. 제 8구는 요임금이 허유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허유가 거절하고, 이런 제안을 들은 것이 불쾌하여 귀를 씻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²⁹⁾ 여기서 鍊藥, 求仙 등과 같이 도교용어를 사용해 시를 지었다.

慾得安身處	이 몸 편히 간직할 곳 얻으려거든,
寒山可長保	이 한산 길 가히 오랫동안 잘 지켜라.
微風吹幽松	실바람이 그윽하게 소나무 숲에 불어드니,

27)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第 20: 其人實爲黃老神仙之學者.

28)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302.

29) 皇甫謐, 『高士傳』 卷上: 堯之讓許由也 ... 由悵然不自得, 乃過清冷之水, 洗其耳.

近聽聲愈好	가까이서 들으면 그 소리 더욱 좋구나.
下有斑白人	그 아래에 반백의 노인이 자리하고,
喃喃讀黃老	황로를 중얼거리며 읽고 있구나.
十年歸不得	십년동안 돌아가 보지 못하더니
忘却來時道	돌아갈 때 그 길을 이미 잊었구나. ³⁰⁾

이 시는 못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하는 가를 권하는 시일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산 자신이 늘그막하게 자신의 인생 역정의 길을 살펴보고 자서전적인 내용을 시로 표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2구에서 寒山 길을 오랫동안 잘 지켜가라는 것은 중의적 표현이다. 즉 편안히 잘 살려거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고유의 삶을 가져서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3구부터 8구까지 그 내용의 전개가 도가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3구 4구에서 도가의 은둔한 생활 시작을 표현하고 있고, 5구 6구에서는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이미 한산 자신은 반백의 노인이 되었고, 입으로는 黃老를 중얼거리고 있느니, 벌써 도교 은둔에 깊이 심취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은 또 다시 흘러 이제는 돌아갈 길조차 잊어 산속 생활에 젖어 있는 자신을 표현해 내고 있다. 여기서 安身處 黃老 등과 같이 도교용어를 시 중심어로 사용하고 있다.

徒勞說三史	헛되이 삼사를 이야기하고,
浪自看五經	공허하게 오경을 보네
泊老檢黃籍	나이 들어 황적을 뒤적이며
依前注白丁	변함없이 일반 서민으로 지내나니
筮遭連蹇卦	점쳐보면 연건괘가 나오고
生主虛危星	사는 동안 허위별을 도맡네.
不及河邊樹	저 개천가의 나무보다도 못한 신세여,
年年一度青	나무는 일 년에 한 번씩 푸른 것을. ³¹⁾

30)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20.

31)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80.

이 시 역시 한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표현해 낸 것이다. 젊을 시절 입심양명을 달성하고자 삼사와 오경을 뒤적거렸지만 이것으로 이루어 낸 것 하나 없고, 나이 들어서에는 도가에 귀의하여 은둔하며 황적을 뒤적거렸지만 시골 촌부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자신이 뭔가 하나는 이룬 우뚝 선 사람이길 내심 희망했으나 언제나 별 보잘 것 없는 촌로에 불과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점괘에서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고통과 번민만 지고 가는 고난의 삶에 대한 점괘만 나오고, 실제적 삶에서도 슬픔과 기아와 고통과 고난만 있는 삶만 살아왔느니 무슨 낙이 있었겠는가? 맨 마지막 7,8구에서는 자신의 삶이 무지렁이 같은 개천가의 나무보다도 못하다고 보고 있다. 즉 비록 무생물이고 무지렁이 같은 나무도 매년 봄이면 새로운 싹이 돌아 푸르러지는데 자신의 삶은 마치 물기 다 빠진 쪽정이 같은 모습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 풀리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비통한 기조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또한 黃籙, 連蹇卦³²⁾, 虛危星³³⁾ 등 도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人生在塵蒙
恰似盆中蟲
終日行遶遶
不離其盆中
神仙不可得
煩惱計無窮
歲月如流水
須臾作老翁

인생은 티끌 속에 묻혀 사는 것,
마치 항아리속 벌레 같구나.
하루 종일 허덕거리며 돌아다녀도
그 항아리 속을 떠나지 못하는구나.
신선은 될 수도 없고,
번뇌는 한없이 끝이 없구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중국에는 늙은이가 되는구나.³⁴⁾

32)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운수를 말한다. 점을 쳐서 이 괘가 나오면 곤란, 고통, 번민이 있음을 뜻 한다.

33) 고대 천문학에서의 28성좌 중 북방에 있는 두 개, 즉 죽음과 울음, 기아와 兵亂을 뜻한다고 한다.

34) 四部叢刊影宋刻本『寒山子詩集』, 236.

인생의 커다란 틀을 항아리로 비유하며,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결국 그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물 흐르듯 세월은 흘러흘러 어느새 늙은이가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 비유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삶을 살펴보고 인생 큰 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 시에서는 神仙, 塵蒙, 盆中蟲, 煩惱, 無窮 등 道敎와 佛敎의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상의 시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寒山詩속에는 많은 도교와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보여 진다.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神仙道士와 관련된 용어

神仙, 仙尊士, 王博, 道士, 天公, 志公師, 四仙, 仙史, 遊方, 餐霞子, 飛鳧, 百兔, 養生, 仙路, 延年, 元神, 蓬萊島 등

2) 道士들이 쓰는 신비약과 관련된 용어

采藥, 妙藥, 靈瓜, 神橋, 芝木, 犀角, 枸杞, 枯腸萋, 茱萸酒, 仙丹術, 梅檀, 黃蘗 등

3) 기타용어

黃籙, 金臺, 待鶴來, 乘魚去, 俗骨, 二儀, 仙籍, 首陽山, 青蚨, 北邙山, 泉臺路, 福力, 金闕, 石橋, 琪樹, 律令 등

이상과 같이 寒山詩속에 道敎的 詩語의 사용이 적지 않다.

3. 通俗用語

문학작품중 시라는 장르의 속성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언어의 예술적

표현을 승화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의 창작은 곧 언어의 창작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면에서 寒山詩는 그 표현 형식상 通俗平易하고, 자유분방한 표현이 많다.³⁵⁾

일반적으로 한산의 많은 시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내용의 시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 내용이 더 많다. 또 남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무릇 시란 시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내거나, 어떤 풍경을 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거나 등등 그 표현하는 방법이 꼭 옛 것을 모방해 전아한 표현만으로 써야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통속적이고 평이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시인의 내적 생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더욱 시의 맛과 멋을 더해줄 수 있다. 한산의 시 300여 편들이 거의 다 통속적이고 평이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해 냈고, 당시 민간에서 썼던 생활 언어와 용어들이 담겨 있어 진솔하고 더욱 감동을 주고 있다

그럼 한산은 자신의 시속에 口語體的이고 通俗的 詩語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분석해 보고자 한다.

有人笑我詩	사람들이 내 시를 비웃는구나,
我詩合典雅	그러나 내 시는 고상하고 법에 맞네.
不煩鄭氏箋	鄭玄의 주석도 번거롭게 할 것도 없고,
豈用毛公解	毛萇의 해설도 어찌 필요하겠는가?
不恨會人稀	날 알아주는 사람 드문 것을 불평하지 않고,
只爲知音寡	다만知音이 적은 것을 어찌하리.
若遣珍宮商	만약 궁상을 찾게 한다면,
余病莫能羅	내 병폐를 그칠 때가 없으리니.
忽遇明眼人	어찌다가 보는 눈 있는 이 만나게 된다면,
卽自流天下	곧 저절로 천하에 퍼지게 될 것을. ³⁶⁾

35) 陳慧劍, 『寒山子研究』, 東大圖書公司, 1984, p.135.

36)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305.

한산은 자신이 시를 쓰는데 『書經』이나 『詩經』을 따르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남들이 자신의 시에 대해 비웃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음을 표현해 내고 있다. 자신의 시가 남들이 평가하는 시의 운율이나 성률에 비록 맞지 않고 파격을 이루고 있음에도, 자신의 시가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에 자신을 알아주는知音을 만나면 그 가치를 알고 천하에 전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결국 당시 시인들의 정형화된 시작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특색 있는 시를 지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즉 이것이 통속적인 風이 그의 시 특색이다.

또 다른 시를 살펴보면

有箇王秀才	여기 왕씨 수재가 있어
笑我詩多失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내 시를 조소하네.
云不識蜂腰	蜂腰 ³⁷⁾ 도 모른다고 말하고,
仍不會鶴膝	鶴膝 ³⁸⁾ 도 모른다고 떠드네.
平側不解壓	平側 ³⁹⁾ 도 알지 못하고,
凡言取次出	그 말이 분명하지도 못하다하고,
我笑你作詩	그러나 오히려 내가 너의 시를 비웃나니,
如盲徒詠日	마치 장님이 해를 노래한 듯하구나. 40)

이 시에서도 한산은 스스로 일반적으로 시의 병폐가 되는 것들이 내 시에 비록 있다 한들, 그것은 무지렁이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과 법칙

37) 蜂腰: 漢詩에서 금기시하는 八病중에 하나로, 八病은 平頭, 上尾, 蜂腰, 鶴膝, 大韻, 小韻, 傍紐, 正紐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중 蜂腰는 五言詩에서는 1句의 第2字와 第5字가 같은 성조인 것을 말함.

38) 鶴膝: 漢詩에서 금기시하는 八病중에 하나로, 五言詩에서 1句의 第5字와 3句의 第5字에 같은 平聲을 쓰는 것을 말함.

39) 平側: 仄仄을 말하는 것으로 한자의 平韻과 仄韻을 뜻하는 것임. 平字는 발음에 高低가 없는 것으로 上平과 下平이 있으며, 仄字는 上, 去, 入의 三聲이 있어 발음이 前後高低가 있는 글자를 말함. 平韻은 30, 仄韻은 76인데 漢詩를 지을때는 이 平仄을 조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40) 四部叢刊影宋刻本『寒山子詩集』, 288.

일 뿐, 그 내용의 진수를 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런 속박 속에 지은 시들을 비웃고 있다. 즉 자신의 시들이 모두 당시 지켜야 한다는 모든 격식들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하게 쓰였음을 밝히고, 여기서 자신의 시가 통속적인 특색을 갖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擁容美少年	부드러이 생긴 미소년이
博覽諸經史	모든 경전 사적을 두루 읽었다.
盡號曰先生	사람들 모두 선생이라 부르고,
皆稱爲學士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학자라 칭하네.
未能得官職	그러나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하고,
不解兼耒耜	또 호미자루 하나 잡을 줄 몰라,
冬披破布衫	한 겨울에도 베적삼을 입었으니,
蓋是書誤己	이 모두 책이 나를 그르치게 하였구나. ⁴¹⁾

이 시에서 한산 자신이 학문과 세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 시속에서도 美少年, 先生, 學士 등은 인물을 지칭한 것으로, 그 시어의 특징이 구어체 적이고 통속적이라 하겠다.

또 다른 한 시를 예를 들어보면,

老翁娶少婦	늙은이가 젊은 색시를 맞으니,
髮白婦不耐	머리 흰 것을 아내가 불평하고,
老婆嫁少夫	늙은 할미가 젊은 사내에게 시집가니,
面黃夫不愛	얼굴이 누렇다고 사내가 미워하네.
老翁娶老婆	늙은이가 늙은 할미에게 장가가니,
一一無棄背	하나 하나 서로 버림이 없고,
少婦嫁少夫	젊은 색시가 젊은 사내에게 시집가니,
兩兩相憐態	쌍쌍이 모두 다 서로 사랑하네. ⁴²⁾

41)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129.

42)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128.

이 시는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혼인세대를 풍자한 것인데, 이 중에서 老翁, 老婆, 少婦, 少夫 등은 인물을 지칭한 用語이고, 髮白, 面黃은 人體의 상태를 언급한 用語로 역시 그 用語들이 口語體적이고 通俗的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口語體적이고 通俗的인 用語들의 사용은 寒山의 시를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친근감과 친숙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또한 그 시가 더욱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杳杳寒山道	멀고 먼 아득한 한산길이어,
落落冷澗濱	쓸쓸하고 차가운 시냇가여,
啾啾常有鳥	짹짹 우는 새는 항상 있는데,
寂寂更無人	적막함에 사람은 다시 없구나.
浙浙風吹面	스산한 바람은 얼굴을 때리고,
紛紛雪積身	펄펄 흩날리는 눈은 내 몸에 쌓이는데,
朝朝不見日	매일 아침 마다 떠오르는 해를 보지 못하고,
歲歲不知春	매해 마다 오는 봄을 알지 못하는구나. ⁴³⁾

여기서 매구 앞머리에 동일한 자를 杳杳, 落落, 啾啾, 寂寂, 浙浙, 紛紛, 朝朝, 歲歲와 같이 반복 중복해서 썼다.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에 高雅한 사대부들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천박한 품격을 갖은 시로 폄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의 첩어들이 시 전체 분위기를 매우 생동감이 나게 살려내고 있다. 그래서 錢鍾書는 『談藝論』에서 寒山詩중 이 시를 예로 들어 습득 보다 아주 잘 지은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⁴⁾

이 시는 매구마다 첩어를 사용하여 寒山의 通俗的 詩語를 잘 활용한 대표작이고 平易自然한 寒山詩 風格에 딱 맞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럼 이러한 寒山詩 속에 나타난 통속적 시어의 특색 중 각 유형별로 분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3) 四部叢刊影宋刻本 『寒山子詩集』, 31.

44) 錢鍾書, 『談藝論』, 商務印書館, 1972, p.225: 寒山詩妥貼流諧之作, 較多於拾得, 如 '杳杳寒山道'一律, 通首疊字, 而不覺其堆垛.

1) 인물을 표현한 용어

美少年, 先生, 學士, 老翁, 老婆, 少婦, 少夫, 盲兒, 孔丘公, 後來者, 老夫, 少室, 無名鬼, 守屍鬼, 黃泉客, 張翁, 鄭婆, 爺娘, 無名無姓, 本人, 小兒, 阿孃, 新差, 小子, 老客, 食肉漢, 男夫, 婦女, 一癡漢, 養女, 田舍兒, 兒, 樵客, 貪人 등

2) 人體와 관계된 용어

風顛, 斑白人, 心珠, 象外人, 心地, 心神, 老陋, 嚙羅, 狗屎相 등

3) 事物과 관계된 용어

死人肉, 酒肉, 火宅, 一粒粟, 牛領蟲, 麻稻, 驢屎, 牛犁, 斗水, 破布衫, 巾車, 青蚨, 彈丸, 甕, 甌, 棍, 瓢鉢, 草庵, 定命橋, 心窟, 石牀, 疎巾, 日頭, 木屐, 布袋, 錢, 盆中蟲, 屎蟲, 一寸草, 一點露, 無價數, 肉醬, 兩惡鳥, 土牛, 石田, 泥丸, 家狗, 尿, 紙袴瓦, 驢鞦, 區, 蚊子, 鐵牛, 甘蔗滯, 牆壁, 石蜜, 蒜殼, 蒼蠅, 老鼠, 飯瓮 등

4) 情緒와 관계된 용어

冷颼颼, 罵, 快活, 無心, 無道理, 何相好, 意根, 無情神, 亡命叫, 憤憤, 樂呵呵, 冷心腹, 不奈, 爽爽, 堂堂, 堵物, 斑猫 등.

5) 體態와 관계된 용어

癡癡, 面黃頭白, 好手, 有限身, 背面, 木傀儡, 碧眼胡, 默, 癡, 顯, 腹膨膨, 痴頑, 奴脣皮, 黃口, 白頭, 癡頑, 鬢髮, 愚癡, 血淋頭, 牛牽磨, 白髮婆 등.

6) 動作과 관련된 용어

活取, 往來, 看一遍, 喃喃, 饒你, 仔細看, 躡, 現, 替代, 打, 喫, 讚說, 啐, 啣,

慙, 餓, 舐, 抹嘴, 瞞 등

이상과 같이 한산의 시 300여 편들이 거의 다 통속적이고 평이한 언어들 사용해서 표현해 냈고, 당시 민간에서 썼던 생활 언어와 용어들이 담겨 있어 진솔하고 더욱 감동을 주고 있다.

Ⅲ. 結論

詩는 확실히 唐代를 대표하는 문학이었다. 그러므로 論者들은 모두 이 唐代를 중국문학사상 시의 황금기라고 말한다. 실로 당시는 初唐, 盛唐, 中唐, 晚唐의 300여년을 거치는 동안 2,200여명의 시인을 배출하였고, 무려 약 50,000여수의 시를 지었으니, 시의 황금시기란 칭호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문학 활동의 계층을 살펴보면 제왕과 귀족에서부터 문사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寒山詩가 정통문학으로 詩壇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寒山詩가 단지 佛敎의 色彩가 진하다 하여 佛門에서 쓰이는 偈語정도로만 간주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傾向이 五四運動 이후 白話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中國文學史上에서 寒山詩에 대해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歐美에 中國의 禪思想이 유입되면서, 갑자기 미국등지에서 한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유행을 하자 이에 中國 大陸 및 臺灣에서도 한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허나 한산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이 단편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던 바, 本稿에서는 寒山詩의 형식적 특징 중 언어적 특징을 연구하여 중국문학사상 寒山의 위치를 재평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미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寒山詩의 형식적 특징을 종합적으

로 살펴 보기위한 그 첫 단계로 형식적 특징 중 하나인 언어적 특징을 종합적이고, 개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寒山詩의 언어특색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佛敎用語를 사용한 것이다. 한산의 시가 불교적 색채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寒山詩 언어특색 중 가장 우선은 바로 불교용어의 사용이라 하겠다.

또 寒山詩 언어특색 중 두 번째 특색은 道敎用語를 사용한 것이다. 한산이 과거급제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난후 방랑을 거듭하다가 道敎에 귀의하기도 한다. 이때의 경험이 그의 시 많은 부분에 투영되어 시속에 도교용어가 다수 쓰이고, 시 내용 역시 도교적 색채가 뚜렷한 내용도 많다.

寒山詩의 언어특색 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通俗用語의 사용이라 하겠다.

寒山은 천태산 한암에 은둔의 길을 택하면서 인간속세와 절연하고, 심산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부귀공명을 추구하던 때의 일과 과거 속세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던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들 속에 통속용어들이 다분히 쓰이고 있다. 한산의 통속용어를 詩語로 사용한 경우, 人物, 人體, 事物, 情緒, 體態, 動作 등의 용어를 시속에 시어로 사용해, 그 시가 평이하고 자연스러우며, 살아있는 듯한 시로 다시 태어나 다른 시인들보다 생동감 있는 맛과 멋이 있게 했다.

寒山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자가 처음 연구할 때 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내용연구가 많고 최근에는 한산시집 판본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인의 시를 연구하는 데는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연구해야 완성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 연구자가 앞선 한산 연구시기에 寒山詩 형식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결과물도 내놓기도 하였으나 그것들은 미성숙 결과물로 이번 재연구를 통하여 보다 완성도가 높은 연구물을 발표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寒山詩의 형식적 특색을 이번 기회에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 주어진 상황과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우선 형식적 특색중 하나인 언어특색을 종합적이고, 개관

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다. 또한 지금 현재 본고에서 못 다루어진 수사적 특색과 성물적 특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후 계속적으로 보다 심층 연구해 보고자 한다.

〈參考 文獻〉

- 閻丘胤撰,『寒山子詩集』(四部叢刊影宋鈔本),商務印書館,1970.
閻丘胤撰,『寒山子詩集』(四部叢刊影玉峰本),商務印書館,1970.
閻丘胤撰,『寒山子詩集』(四庫全書鈔本),商務印書館,1970.
閻丘胤撰,『寒山子詩集』(月刊白口八行本),臺灣中央圖書館藏本.
閻丘胤撰,『寒山子詩集』(擇是居本),中央研博斯年圖書館藏本.
- 余嘉錫,『四庫提要辨證』,中華書局,1974.
錢鍾書,『談藝論』,商務印書館,1972.
皇甫謐,『高士傳』,中華書局,1970.
- 孫旗,『寒山與西皮』,普天出版社,1974. 6.
程兆熊,『寒山子與寒山詩』,大林出版社,1977. 12.
趙滋蕃編,『寒山的時代精神』,這一代出版社,1971. 8.
曾普信,『寒山詩解』,華光書局,1970. 6.
陳慧劍,『寒山子研究』,東大圖書公司,1984. 6.
項楚,『寒山詩注』,中華書局,2000. 2.
黃博仁,『寒山子研究』,新文豐出版公司,1972. 3.
- 董季尚,『修辭析論』,益智書局,1983. 12.
杜松柏,『禪學與唐宋詩學』,黎明文化事業公司.
勞思光,『中國哲學史』(一)(二),三民書局,1971. 10.
劉開揚,『唐詩通論』,木鐸出版社,1983. 4.
劉大杰,『中國文學發展史』,華正書局,1975. 7.
鄭振鐸,『插圖本中國文學史』,明倫出版社,1976. 9.
朱鳳玉,『王梵志詩研究』,學生書局,1986. 3.
胡適,『中國古代哲學史』,商務印書館,1970. 6.
胡適,『白話文學史』,文光圖書有限公司,1977. 10.

黃永武, 『中國詩學』(一)(二)(三)(四), 巨流圖書公司, 1983. 10.

朴魯玟, 「寒山詩及板本之研究」, 臺灣 國立政治大 中文所 碩士論文, 1976.

沈美玉, 「寒山詩研究」, 臺灣 文化大 中文所 碩士論文, 1977.

李鮮熙, 「寒山其人及其詩研究」, 臺灣 東吳大 中文所 博士論文, 1992.

卓安琪, 「寒山子其人及其詩之箋注與校訂」, 臺灣 文化大 中文所 碩士論文, 1971.

高淳豪, 『佛教學概觀』, 宣文出版社, 1983. 4.

용하스님편저, 『大般涅槃經』(한글현토본), 비움과 소통, 2018.12.

Abstract

*A Study about the language characteristics of the poetic works
-written by the poet Hanshan(寒山)-*

Park Ro-heyn*

This paper is focused on a study about the language characteristics of the poetic works written by the poet Hanshan(寒山) who was said to have survived around the periods of 785-804 A.D during the Chinese Tang Dynasty. Hanshan(寒山) or Hanshanja(寒山子) name was derived from the seclusive lifestyle he lived at Han-Ahm(寒岩), Mt. Tiantai(天台山) in China. There are a number of debatable records which are said to represent an interactive relationship with monks(豐干, 拾得) at the Gukcheong-Temple, Mt Tiantai, however Hanshan's birth name as well as actual existence has yet to be confirmed. Hanshan's poetry gained a new form of popularity amongst the civilians after the period of Tang dynasty, especially resulting in his poetry being highly admired in the Buddhist community, many editions emerged during the proceeding Song and Ming dynasties. By the Qing dynasty, also publishing in Quan Tangshi(『全唐詩』) and Siku Quanshu(『四庫全書』), Hanshan poems which are currently still in existence are said to be as many as 300 while still maintaining its fame for approximately one thousand years to date.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Hanshan poems(寒山詩), the first one entails the use of Buddhist terminology. It is common knowledge that all of his work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realm of Buddhism, resulting as the most undeniably outstanding characteristic.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use of Taoist terminology reflected within his poems. After suffering internal frustration due to his failed state examination, he was left in a state of aimless wandering as a result he became deeply converted into Taoism. Hanshan's journey through Taoism was projected onto many of his works and the content within

* Professor of Sangji youngseo college. / san0877@hanmail.net

his poems also came to be filled with distinct Taoist features.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e use of popular terminology during this era. Retiring to a lifestyle of hermitage at Han-Am(寒岩), Mt. Tiantai, while being separated from secular affairs, Hanshan used various popular terminology within his poetry of his old reminiscent days, when he spent quality time with his family while looking for wealth and prosperity. Hanshan's usage of popular terminology in his work, resulted in a more simplistic production of poetry, which left a more realistic and lively presence compared to other fellow poets.

【Key words】 Hanshan poems,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Buddhist terminology, Taoist terminology. Popular terminology.

투고일 : 11월 04일, 심사완료일 : 12월 02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